



효천고 투수 차명진

187cm·89kg 우투우타 순천북초-이수중-순천효천고



효천고 내야수 박계범

178cm·70kg 우투우타 순천북초-이수중-순천효천고



진흥고 투수 하영민

180cm·67kg 우투우타 수창초-진흥중-진흥고

# 류현진 14일 2승 도전

## 애리조나 원정 ... 에이스 케네디와 격돌

원손 투수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14일 오전 9시 10분(이하 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 필드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미국 프로야구 시즌 2승에 도전한다.

애리조나 구단이 10일 언론에 배포한 게임노트를 보면, 류현진은 이날 선발로 마운드에 올라 우완 에이스 이언 케네디와 격돌한다. 케네디는 2011년 21승, 지난해 15승을 거둔 애리조나의 간판 투수다.

8일 퍼즈버그를 제물로 역사적인 메이저 리그 첫 승을 신고한 류현진은 여세를 몰아 첫 원정 승리도 이루겠다는 각오로 나선다. 그는 정규리그 개막 이래 홈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두 차례 선발 등판해 1승패를 기록하고 있다.

애리조나 타선이 강한 데다 타자 친화적인 체이스 필드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류현진은 제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저스와 더불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 속한 애리조나는 9일까지 5승 2패를 거둬 콜로라도 로키스와 지구 공동 1위에 올라 있다.

애리조나 타선은 팀 타율 0.281을 기록하고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다. 팀 장타율이 0.449(리그 4위)에 달할 정도로 화끈한 방망이가 돋보인다.

홈런 2방을 때리고 8타점을 올린 폴 골드 슈미트를 필두로 베테랑 애런 힐, 마틴 프라도로 이뤄진 오른손 중심 타선과 왼손 톨타자 헤르라르도 파라, 제이슨 쿠벨, 에릭 차베스 등 장타력과 정확성을 겸비한 왼손 타자들이 류현진과 맞선다.

시즌 2승의 지름길은 결국 우타자 봉쇄에 있다.

2경기에서 12%이상 동안 3차점점을 취 평균자책점 2.13을 기록한 류현진은 오른손 타자에게 안타를 많이 맞았다.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0.325(40타수 13안타)에 달한다.

이에 반해 왼손 타자와 8번 대결해 안타와 볼넷 1개 없이 삼진 5개를 잡았을 정도로 강



LA 다저스 류현진

한 모습을 보였다. 류현진은 우타자에게 지구와 체인지업, 좌타자에게 슬라이더를 주로 던졌다. 지구 컨트롤을 얼마만큼 낮게 유지하고 체인지업의 각도를 어떻게 가다듬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타자들의 천국'으로 통하는 체이스필드는 류현진의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할 장소이기도 하다. 콜로라도 로키스의 홈구장 쿠어스필드 다음으로 고지대에 자리한 체이스필드는 공이 뜨면 공기 저항을 덜 받아 멀리 나가는 곳으로 유명하다.

홈에서 가운데 펜스까지 거리는 124m, 좌중간과 우중간 가장 깊은 곳까지 거리는 126m에 달해 외야가 광활하다. 2루타 이상 장타가 쏟아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공이 뜨면 장타로 이어질 공산이 큰 이상 류현진은 타자 무릎을 파고드는 칼날 제구로 최대한 낮게 던져야 한다. 뜬공보다 땅볼로 타자를 유인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연합뉴스

## 호랑이로 키울 광주·전남 고교야구 최대어는?

# 1위 차명진·2위 박계범·3위 하영민

### 프로야구 1차 지명 부활 ... 5개 구단 스카우터들이 꼽은 유망주

2013시즌 광주·전남 고교야구의 대어는? 올 시즌 5년만에 프로야구 1차 지명제도가 부활했다. 연구 선수 1명씩을 우선 지명하게 되면서 지역 고교팀 대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생팀 NC와 KT의 리그 참여에 따라 연구 지역의 변화가 있다. KIA는 광주·전남 지역의 연구권을 행사한다. 광주일고·동성고·진흥고와 함께 순천 효천고·화순고 출신을 선택할 수 있다.

각 구단 5명의 스카우터가 꼽은 광주·전남 최고의 고졸 대어는 효천고 투수 차명진이다. '톱 3'을 묻는 질문에 5명 모두 차명진을 우선 언급했다.

우투우타의 차명진은 순천북초-이수중을 거쳐 효천고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다. 187cm의 장신으로 신체조건이 좋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등을 구사하며 140km 중반의 공을 던진다. 올 시즌에는 146km까지 기록했다. 제구가 숙제였지만 올 시즌 안정된 밸런스와 함께 제구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며 최고의 유망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차명진은 "코치님이 밸런스를 많이 강조하신다. 밸런스가 좋다는 말씀을 해주신다. 마운드에서 자신있게 내 공을 뿌리려고 한다. 볼 모델도 최동원이다. 자신감있는 피칭과 무쇠팔이 부럽다. 나도 그런 투수가 되고 싶다"며 "올 시즌 10승을 하는 게 목표다. 무엇보다 팀 우승을 하고 졸업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차명진과 조·중·고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유격수 박계범도 4표를 받았다. 지난해 청소년 대표 유격수로 매서운 활약을 펼쳤던 우타자 박계범은 빠른 발과 손목 힘, 정확한 송구 등 공·수·주 3박자를 갖추고 있다. 특히 투수로 140km의 공을 던지기도 하는 등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한 수비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

박계범은 "강한 어깨가 가장 큰 장점이다. 야구 센스에서도 자신감 있다. 이종범이 내 볼 모델이었다. 도루하는 능력과 홈런치는 능력, 넓은 수비 폭과 강한 어깨 등이 대단하다"며 "우승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꼭 우승을 하고 싶다. 꾸준히 잘하는 선수가 목표"라고

### 차명진 - 최동원 같은 무쇠팔

### 박계범 - 공·수·주 팔방미인

### 하영민 - 가능성이 무궁무진

### 광주일고 3루수 정기훈

### 동성고 에이스 박규민도 주목

말했다.

진흥고 우완 하영민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4명의 스카우터의 선택을 받았다. 180cm의 하영민은 안정된 밸런스와 함께 다양한 변화구 구사능력을 갖춘 '윤석민과' 선수. 경험도 장점이다. 지난해부터 좌완 임양섭과 원투펀치로 활약하며 진흥고 대통령배 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수창초와 진흥중을 거친 하영민은 "체인지업과 슬라이더, 커브를 던진다. 지구 구수는 142km를 기록했다. 기복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밸런스가 좋아서 쉽게 쉽

게 공을 던지는 편이다"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욕심부리지 않고 내 할 일을 하자는 생각으로 시즌을 보내고 있다. 동기들과 한 번 더 우승을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동성고 에이스 박규민과 광주일고 3루수 정기훈도 주목할 만한 선수로 이름이 언급됐다.

183cm의 우완 박규민은 1학년 때 143km를 찍어 입소문이 난 투수이다. 지난해 팔꿈치와 무릎 부상으로 재활의 시간을 보내느라 기대했던 강속구가 잠잠하지만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인물이다. 광주일고의 주장 정기훈도 수비로 프로 무대를 어필하고 있다. 186cm·82kg의 균형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으며 강한 어깨에서 나오는 송구와 안정적인 수비가 무기다. 타석에서의 파워가 속제다.

동국대의 준계리그 우승의 주역 유격수 강민국과 사이드모고 고영표도 KIA의 1차 지명후보이자 2013 신인 드래프트 상위지명을 예고하는 대어다. 광주일고 출신의 강민국은 타고난 야구 센스와 수비로 KIA에서도 눈독을 들이는 선수고 KIA 고영우의 친동생인 화순고 출신의 고영표도 140km 중반대의 빠른 볼을 보유한 특급 선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추신수 4경기 연속 멀티히트

### 세인트루이스전 2안타 ... 타율 0.394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4경기 연속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이상) 행진을 이어나갔다.

추신수는 10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 스타디움에서 계속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방문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5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경기부터 6경기 연속 안타를 생산한 추신수는 시즌 타율을 0.379에서 0.394로 끌어올렸다. 아울러 시즌 6번째이자 4경기 연속 멀티 히트를 작성하며 절정의 타격감각을 이어갔다.

경기 초반 추신수는 지난 시즌 18승 7패(평균자책점 3.78)를 기록한 세인트루이스의 오른손 선발 랜스 린을 상대로 고전했다. 지난해까지 아메리칸리그에서만 댄 메이저 리그 9년차인 추신수와 2011년 내셔널리그에서 빅리그에 데뷔한 린이 맞대결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신수는 1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볼 카운트 2볼-2스트라이크에서 린의 바깥쪽 낮은 151km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4회초 무사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도 추신수는 무릎 높이로 낮게 깔려 들어오는 150km짜리 몸쪽 직구에 크게 헛방망이질하며 삼진을 당했다. 추신수는 세 번째 타석에서 마침내 안타를 때려냈다.

팀이 1-0으로 앞선 6회초 또다시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노블 투스트 라이크에 물렸으나 볼 3개를 침착하게 고른 뒤 투수옆을 스쳐 지나가는 중전안타를 뽑아냈다. 추신수는 다음 타자 잭 코자트의 유격수 땅볼 때 2루에서 포스아웃됐다. 8회초 1사에서는 상대 세 번째 투수 트레버 로젠탈의 159km 강속구를 가볍게 밀어



신시내티 레즈 추신수

쳐 좌전 안타로 연결하며 멀티 히트를 완성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코자트가 유격수-2루수-1루수로 이어지는 병살타를 치는 바람에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전날 실책 2개를 범하며 망신살 뿜치는 경기를 했던 추신수는 이날은 위기에서 멋진 송구로 주자를 잡아내며 자존심을 회복했다.

추신수는 1-3으로 뒤진 6회말 2사 3루수비에서 카를로스 벨트란의 중전 안타를 잡는 순간 2루 주자 맷 할러데이가 3루를 거쳐 홈까지 파고들자 총알 같은 송구를 날려 잡아냈다. 추신수의 시즌 1호이자 통산 50호째 보살. 신시내티는 1-5로 패했다. /연합뉴스

### Ⓞ KIA 덕아웃 말말말

▲글러브가 있다는 걸 모르시나 박요=지명타자로 출전하고 있는 나지완, 감독님께서 수비에 내보내 주지 않는다며,

▲아실 거야=나지완의 푸념을 들은 차일목,

▲면도기를 안 가져왔어요=수염을 자르

### 양현종 "북한 미사일 뉴스 보니 잠이 안와요"

지 않고 등장한 두산 김현수, 특별한 이유가 있는나고 묻자,

▲살려고 뛰어요=김현수, 너무 추워서 전력으로 외야를 뛰어다니고 있다며,

▲1회 끝나고 같이입었잖아요=반소매 차림을 고수하는 최희섭, 9일 경기에서는 1

회 끝나고 언더 셔츠를 입고 나왔다며,

▲마음은 따뜻하니까=이범호, '추운 날 씨에 고생이 많다'는 얘기에 경기를 뛰고 있어서 마음은 따뜻하다며,

▲4시까지 잠 못 잤어요=양현종, 북한의 미사일 관련 뉴스를 보고 잠이 오지 않더라

며, 양현종은 진해수와 함께 한동안 전시장황과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를 했다.

▲고맙지=두산 이해찬이 최희섭에게 인사하는 것을 본 선동열 감독, 전날 경기에서 최희섭은 7회 이해찬이 던진 공에 맞아 출루했다. KIA는 밀어내기로 4-4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볼펜의 난조로 4-11 역전패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